

발간 번호

2011-04-02

2011년도
이슈페이퍼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주영 (건강과대안 연구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 약 문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꾸준한 사회이슈가 되어왔지만, 그에 비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방대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최근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구조조정과 노동자건강과의 상관성이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은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을 비롯, 우울증, 자살 증가 등 심각한 건강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행태가 나빠지는 것 또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이러한 연구들조차 대부분 복지정책이 튼튼하다고 평가되는 북유럽국가의 연구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내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 중 자살한 사람들 수가 6명이다. 최근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일반인구의 자살률보다 3.74배 높은 수치였고, 자살한 사람 외에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5명이 사망했다. 심근경색 사망률은 일반인구의 18.3배 높은 셈이다.¹⁾

사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이미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 따라서 이로 인한 인력감축 등의 과정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항상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거나 명예퇴직 같은 형태로 회사를 떠났다.

구조조정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과는 달리, 구조조정이 낳은 결과에 대해, 특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잘 언급되지 않는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상시화된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이후, 잇따르는 노동자들의 자살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결과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구조조정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 내의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장기적인 추적연구가 불가능한 조건,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찾아내기 힘든 조건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었다.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사례가 가진 특수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구조조정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해외 연구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연구들은 정리해고당한 사람들을 비롯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조차 해악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조차 잘 알려지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자건강에 대한 해외 논의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구조조정이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고자 한다.

2. 구조조정의 정의

1)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2011.4),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구조조정은 애초 1981년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사용한 용어다²⁾.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거나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 또는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수동적 구조조정 이외에도, 국내외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 기술을 개발하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이 적극적 구조조정 기법으로 불린다.³⁾

국제노동기구ILO는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비롯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을 규정하며,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강요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⁴⁾ 특히 제3세계의 경우, 이 용어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왔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와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구조조정 경향은 특정 기구에 의해 강요된 성격이라기보다 정부·민간기업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조정, 특히 인력감축에 집중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 건강간의 상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보다 [Organizational] downsizing⁵⁾ 혹은 [Organizational] restructuring⁶⁾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해오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특정시기 두드러지긴 했으나, 그 이전부터 구조조정은 있어왔고, 최근 구조조정 경향은 앞서 언급했듯이, 강요된 것이 아닌 자발적 구조조정의 성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work organization 등의 용어사용도 최근 두드러지는데, 이는 구조조정의 과정 혹은 결과로 인한 인력감축과 인력관리 및 인력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⁷⁾ work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구조조정을 단순히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정치경제적 외부요인(세계화, 탈규제화, 기술혁신,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관리구조, 생산방법 등의 조직요인이 변화하여 기업구조조정(인력감축 등), 새로운 생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며 새로운 고용관리정책(비정규노동 등)이 본격화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든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의 유형으로 작업 재배치, 아웃소싱/외주, 부도/폐쇄, 인수/합병, 내부구조조정, 사업 확장 등으로 규정하며⁸⁾, 대부분의 구조조정 유형들은 인력조직을 축소하면서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

2) 김기란 (2009), 대중문화사전, 현실문화.

3) 기획재정부(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346>

4) ILO(1996), Trade Unions and Structural adjustment: A guide for trade union participation.; Lapeyere, F.(2004), Globaliz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as a development tool, ILO working paper No.31.

5) Freeman, S.J. and Cameron, K.S. (1993), Organizational Downsizing: A Convergence and Reorientation Framework, *Organization Science*, Vol. 4, No. 1, February 1993, pp. 10-29.

6) Kieselbach et al.,(2009), Health in Restructur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HIRES Project, Bremen University.

7) Schnall, P. (2004), Workplace Organiza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Risk, Conference presentation, Mexico-city.

8) Kieselbach et al.(2009).

식을 기본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3.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발표된 한 리뷰논문에 따르면, 구조조정과 건강간의 상관성-고용불안정성·구조조정과 건강-을 다룬 논문들 86개(1966년~2007년에 출간된) 중 73개가 노동자의 건강에 구조조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외, 7개의 연구가 혼합된 결과를, 5개의 연구만이 구조조정이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오직 1개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⁹⁾ 이 외에도 본 보고서에서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조조정이 노동자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구조조정의 부작용은 단기간에만 나타나지 않고, 소득손실과 경제능력 저하, 지속되는 고용불안정 등으로 영향을 미친다.¹⁰⁾ 단기간으로는 음주, 흡연 등 건강행태의 악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 심혈관계 질환 증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악화, 기타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있을 수 있다.

가.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해고=사망률 증가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공장폐쇄 등의 인력감축을 수반한다.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신적, 육체적 질병 발병률이 급증하고, 자살률이 높아지며, 흡연과 음주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증가하는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들이 급증하게 된다.

1) 사망률 증가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공장폐쇄로 직장을 잃은 직후, 4년간 남성들의 사망률이 44% 증가했다. 이토록 단기간 증가한 사망률의 원인은 주요하게 자살 증가, 음주 관련 질환으로 사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2배 정도 증가했다.¹¹⁾ 또한, 구조조정의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정신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그리고 자살을 하는 발생률이 일반 인구보다 월등히 높다.¹²⁾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는 구조조정 이후, 7년 6개월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하면서, 핀란드 노동자 중에서

9) Quinland M. and Bohle P.(2009), Overstretched and unreciprcated commitment: Reviewing research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ffects of downsizing and job insecurity, *Internatioanl Journal of Health Services*, Volume 39, No.1, Pages 1-44.

10) Eliason, M. and Storrie, D.(2007), Does Job Loss Shorten Life?, Working papers in economics, No 153, School of business, economincs and law, GÖTEBORG UNIVERSITY.

11) Eliason, M. and Storrie, D.(2007),

12) Kieselbach et al.(2009).

구조조정 규모가 클수록 심혈관계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¹³⁾(Vahtera, 2004)

또한, 구조조정의 정도에 따라서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구조조정이 없을 때보다 2배가량 더 높았다는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특히 구조조정 이후, 추적(follow up)기간 중 첫 4년간에 심혈관계 사망률이 5.1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⁴⁾

2) 심혈관계 질환 증가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은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직무긴장도가 높아지는 경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혈관계 질환은 직무스트레스와 연관을 가지는데, 혈압이 높아지고, 좌심실 질량이 높아지며, 동맥경화증, 부정적 대사반응이 나타나고, 심박수가 변화하는 등의 경향, 심근경색, 급성 심장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 연구는 직무긴장도와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 26개를 검토한 결과, 12개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나왔으며, 혼합된 결과 또는 관계없다고 밝힌 연구가 11였다고 밝혔다.¹⁵⁾ 최근 연구로는, 정리해고를 당한 나이 든 노동자들의 경우, 우울증세와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이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¹⁶⁾

또한, 직무긴장도와 심근경색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한 스웨덴 연구는 전체 남성노동자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남성노동자를 비교하면,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5배가량 더 높았다.¹⁷⁾ 더불어,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급성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2배가량 더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증가한 점에 주목한 한 연구는, 장애를 가진 노동인력이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미국에서 모두 증가했고, 대부분의 주요원인이 심리적인 요인, 근골격계, 심혈관계 장애로 인한 질환이었다고 했다.¹⁸⁾ 이외 한 영국 연구에서는 영국 공무원의 경우, 민영화된 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등)이 발생할 위험도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¹⁹⁾

13) Vahtera, J., et al.(2004), Organisational downsizing, sickness absence, and mortality: 10-town prospective cohort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28, p.555-560.

14) Vahtera, J., et al.(2004), Organisational downsizing, sickness absence, and mortality: 10-town prospective cohort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28, p.555-560.

15) Schnall, P. (2004),; Belkic K, Landsbergis P, Baker D, (Eds.), The workplace and cardiovascular disease, *Occupational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2000; 15:24-46.

16) Gallo, W. T. et al. (2006), The persist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workers who experience involuntary job loss: results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4): S221--228.; Gallo, W. T. et al. (2006b), The impact of late career job loss on myocardial infarction and stroke: a 10 year follow up using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3(10): 683--687.

17) Schnall, P. (2004),

18) Karasek R. The Stress-Disequilibrium Theory of Chronic Disease Development: Low Social Control and Physiological De-regul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Department of Work Environment, 2005.

19) Paul Landsbergis, The global economy and the changing nature of work, Workshop on Mental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Institute of Mental Health, Peking University, Beijing, China, September 24, 2007.

3) 우울증 등 정신건강 악화

구조조정의 결과를 다룬 초기연구에 따르면,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이후, 첫 주에는 해고자들이 분노하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지만, 새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몇 주후 다시 분노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경우, 정신적인 충격으로 감정이 악화되고 우울한 생각과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²⁰⁾

특히, 스웨덴에서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2008년), 응답자 중 35%가 ‘구조조정의 이유는 사장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데 있다’고 답변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신건강이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비록 예비연구 형식의 자료지만,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비교적 고용안정성이 큰 스웨덴에서조차,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불분명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분노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²¹⁾

미국의 한 연구는, 똑같은 해고라고 해도, 공장폐쇄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우울증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은 정리해고로 인한 우울증이 더 크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공장폐쇄로 인해 실직했을 때, 우울증이 더 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²²⁾ 뉴질랜드의 한 연구는, 해고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입원,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자해 증상을 갖게 되었고, 정신병으로 입원할 확률이 높았다고 밝혔다.²³⁾

4) 상병결근Sickness absence의 변화, 음주 · 흡연 등 건강관련 행태 악화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는 구조조정과 상병결근sickness absence와의 관련성을 분석했으며, 구조조정은 상병결근 일수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직원들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²⁴⁾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핀란드 시립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구조조정과 상병결근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구조조정은 상병결근이 증가하는 주요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병결근에 미치는 영향에서, 혼합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병가를 내는 것조차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경험한 여성들 중, 특히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큰 여성들은 상병휴가를 받는 기간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병으로 자주 결근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두려움 때문이었다.²⁵⁾

20) Theorall, T. et al.(2009), Restructuring and Employee health, 5th International Vilnius Conference, EURO mini conference, September 30-October 3, Vilnius, Lithuania.

21) Theorall, T. et al.(2009).

22) Brand, J.E., Levy, B.R. and Gallo, W.T. (2008), Effects of Layoffs and Plant Closings on Subsequent Depression Among Older Workers, *Research on Aging* 30: 701.

23) Keefe, V. et al.(2002), Serious health events following involuntary job loss in New Zealand meat processing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2;21:1155-1161.

24) Østhus, S. and Mastekaasa, A.(2009), Downsizing and sickness absence, Oslo University.

건강관련 행태를 보면, 정리해고나 실직으로 인해 흡연이 증가하며, 음주량 또한 변화한다. 2004년에는 구조조정의 직·간접적 효과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관련 행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한 연구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직접 경험한 노동자와 간접경험(친구, 동료 등)한 노동자를 비교할 경우, 직접 경험한 노동자들이 훨씬 더 현저한 건강문제(음주, 우울증, 안전사고)를 갖고 있었다. 즉, 더 고용불안을 느낄수록, 작업역할이 애매하다고 느낄수록, 음주량이나 우울증강도가 더 심하고, 궁극적으로 더 악화된 건강과 안전사고로 이어진다.²⁶⁾

나. 구조조정이 남겨진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강도 강화가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 실직이나 해고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재배치를 받거나, 다른 고용형태로 바뀔 수 있으며, 똑같은 업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해고된 노동자의 업무까지 도맡아해야 하므로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노동자의 경우도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거친 제조업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노동자일수록, 고용불안정을 느끼고, 자기역할을 애매하게 느끼며,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의지가 높고, 우울증이나 건강문제(요통, 두통, 심장문제, 고혈압, 위궤양, 소화불량 등)가 더 심각하다.²⁷⁾ 구조조정의 유무 뿐만 아니라, 그 횟수나 규모까지도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더불어, 구조조정의 속도도 중요요인이 된다. 구조조정의 추진속도(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여부)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스웨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업무확장이 빨리 진행된 노동자일수록, 장기 병가와 입원율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업무확장이 약하게 천천히 진행될수록, 입원할 위험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변화의 속도 또한, 노동자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보인다.²⁸⁾

1) 근골격계 질환 증가

25) Theorell, T. et al. (2003). Downsizing of staff is associated with lowered medically certified sick leave in female employee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0(9): E9.

26) Moore, S. et al.(2003), Physical and Mental Health Effects of Surviving Layoffs: A Longitudinal Examination, RESEARCH PROGRAM ON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WORKING PAPER PEC2003-0003*.University of Colorado.

27) Moore, S., Grunberg, L. and Greenberg, E. S.(2003), Repeated Downsizing Contact: The Effects of Similar and Dissimilar Layoff Experiences on Work and Well-Being Outcomes, Research program on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Working paper PEC2003-0007.

28) Westerlund, H. et al. (2004), Workplace expansion, long-term sickness absence, and hospital admission, *Lancet* 363(9416): 1193—1197.

구조조정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 등 새로운 생산시스템 도입도 노동자 건강에 미친다. 한 미국 연구에 따르면, 린 생산방식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관리시스템은 자동차산업에서 노동강도 강화, 직무요구도 증가로 이어지는데, 결정권한 범위와 기술은 증가하거나 일시적으로 생길지 몰라도, 직무재량도는 여전히 낮다. 이렇게 직무긴장도가 커지고 스트레스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노동강도 강화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결국 노동자의 건강은 악화된다.²⁹⁾ 이렇게 직무재량도는 낮으면서, 직무요구가 심리적으로 높을 경우, 직무긴장도job strain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³⁰⁾

린 생산방식과 유사하게, 관리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자 건강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미 1992년에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 전자감시가 도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노동자들을 비교하면서, 어깨통증, 목통증, 우울증, 분노, 피로 등의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³¹⁾

2) 건강상 장애 발생

구조조정은 스트레스를 강화시킨다. 2000년의 연구에 따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정이 가장 강화되고, 육체적 활동량이 늘어난다. 이에 비해, 회사활동에 참여도는 가장 떨어지고, 배우자 지원도 감소, 동료 지원도 감소, 흡연이 늘어나지만, 음주는 감소한다.³²⁾ 구조조정의 규모도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중요요인이 된다. 구조조정이 퇴직할 시기의 건강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힌 연구는 핀란드 시립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다. 구조조정과 퇴직시 장애연금을 받는 상관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연구대상이 된 10개 도시 모두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질병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은 비율은 구조조정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구조조정 규모가 작았던 경우조차, 장애연금을 받은 가능성은 역시 구조조정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³³⁾ 구조조정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구조조정의 범위가 클수록, 노동자들은 심각해진 육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인해, 퇴직과 동시에 장애연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은 제외된 연구이므로, 임시직 노동자들의 건강

29) Landsbergis, P.A., Cahill, J., and Schnall. P.(1999), The impact of lean production and related new systems of work organization on worker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4, No.2, p.108-130.

30) Karasek, R.(2005), The Stress-Disequilibrium Theory of Chronic Disease Development: Low Social Control and Physiological Deregulation, 4th ICOH, March, 2005 Work Environment Depart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USA

31) Smith MJ, Carayon P, Sanders KJ, Lim S-Y, LeGrande D. Employee stress and health complaints in jobs with and without electronic performance monitoring. Applied Ergonomics 1992;23:17-27.

32) (Kivimäki, 2000)

33) Vahtera, J., et al.(2005), Organisational downsizing as a predictor of disability pension: the 10-town prospective cohort stud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5;59:238-.242.

악화는 이와는 다른 차원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다. 한국의 연구사례: 해고자도, 살아남은 자도 건강을 뺏긴다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한국 연구는 많지 않다. IMF경제위기를 전후로, 경제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몇몇 있었을 뿐이며, 구조조정에 직접 초점을 맞추어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구조조정 대상자와 대조군을 선정하기 힘든 조건, 구조조정 대상자들조차 찾아내기 힘든 조건(대부분 흩어지거나 조직적으로 결집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이 힘든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한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다.

2003년 진행된 조성애의 연구를 보면, 취업군에 비해, 정리해고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적었고, 정기적인 식사비율도 취업군의 약 1/5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흡연과 음주를 하는 횟수나 용량을 보면, 정리해고자군이 훨씬 높았고, 정리해고자 중 60%넘는 수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들고 성적관계도 줄었다고 밝혔다. 실직으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이웃, 친구, 친지로부터 차별당한 경험 때문에, 정신건강상태가 취업군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였다.³⁴⁾ 정리해고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상황은 더 나빠졌다.

조성애는 문헌연구를 통해,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또한 언급한다. 이들의 종합검진결과에 따르면,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수입원의 변화,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 증가된 흡연 및 음주 등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대균, 김정원, 강동묵의 연구 또한, 이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실직자들의 건강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건강은 취업군과 비교할 때, 불규칙한 식사와 흡연·음주가 증가하면서 건강이 나빠졌고,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중년층에서 가장 크게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업군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이 적어서 생활습관이 개선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즉,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는 것이, 규칙적 시간구조의 파괴, 삶의 목적과 의미상실로 인한 무력감 및 우울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하며, 규칙적 시간구조가 파괴되면서 이것이 불규칙적인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불규칙적인 식사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밝힌다.³⁵⁾ 이 연구에서 밝히듯, 실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업 후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방어기제로 흡연과 음주량이 증가한다.³⁶⁾³⁷⁾ 여기서, 흡연 증가는 자살, 폐암 뿐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 건강악화로 이어진다. 음주증가는 우울감 상승,

34) 조성애, 정진주, 구정완(2003), 동종산업 종사 근로자와 정리해고자의 정신건강상태 비교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5권 제4호, p.335-343.

35) 홍대균, 김정원, 강동묵(2009), 구조적 실업이 건강관련행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제21권 제4호, p.346-353.

36) De Vogli R, Santinello M. Unemployment and smoking: does psychosocial stress matter? Tob Control 2005;14(6):389-95.

37) Mossakowski KN. Is the duration of poverty and unemployment a risk factor for heavy drinking? Soc Sci Med 2008;67(6):947-55.

자신감 상실, 자해,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소화기질환, 위장관 질환, 음주 후 교통 사고 등 육체적 건강 악화에도 관련된다. 실업의 선행연구에서는 실업의 신체적 건강영향으로, 순환기계 질환과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 등이 관찰된다.³⁸⁾

서울, 전북, 경기 지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 연구는, 기업구조조정이 고용 불안정성과 노동자건강(소화, 두통, 심장과 관련한 신체 증상, 눈에 관련한 신체증상, 코나 호흡기와 관련한 신체증상, 자신감·자존감과 관련한 사회심리적 요인, 불면증, 식욕부진 등 사회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흡연과 음주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건강도 악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노동자 건강행태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쳐, 기업구조조정→고용불안정성→건강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³⁹⁾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정신건강 3차 실태조사 보고서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의 정신건강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52.3%이었고, 50.0%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고도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인명사고를 경험하는 기관사, 50년간 폭격장 주변에 살면서 인적, 물적 피해를 경험한 주민, 해직된 노동자들보다도 7~8배 높은 수치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⁴⁰⁾

4. 구조조정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과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틀어, 건강에 미치는 상관성이 있지만, 주로 구조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는)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림1과 같다.

38) Eliason M, Storrie D. Job loss is bad for your health -Swedish evidence on cause-specific hospitalization following involuntary job loss. Soc Sci Med 2009;68(8):1396-406.

39) Park, Chaekyu(2003), The effects of corporate restructuring on workers' health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Vol. 32, No.1, pp.27-45.

40)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2011.4),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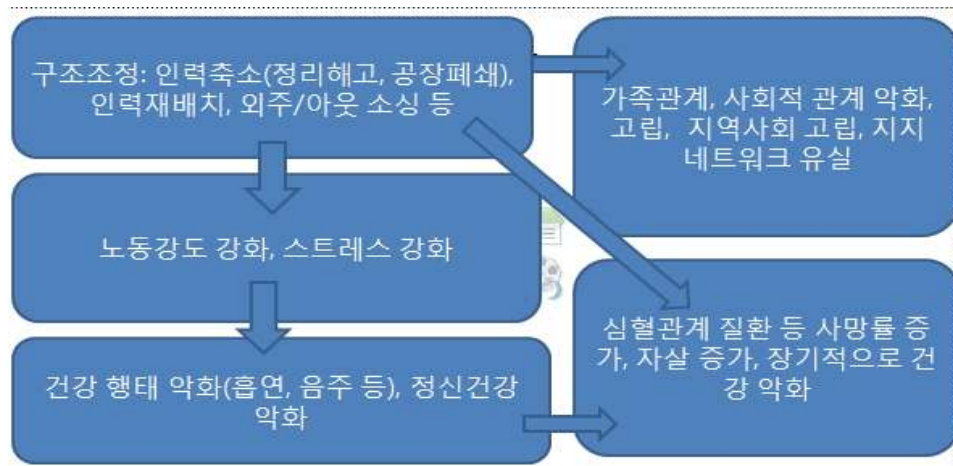


그림 1 구조조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은 일자리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배우자의 지지·지원이 훼손되거나, 흡연을 증가시킨다. 상병휴가는 소규모 구조조정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 2.17배 더 높아진다. 이러한 연관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일자리변화의 요인들(예를 들어, 육체적 노동량, 작업통제권, 고용안정성의 변화)같은 것들이다. 즉, 구조조정은 일자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건강관련 행태를 변화시키는데, 상병휴가 증가가 발생한 일부 원인은, 신체적노동량증가, 고용불안정, 작업통제권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한 연구자는 이를 'The "new" fatigue'라고 소개한다.(그림2)

41) Kivimäki, M. et al.(2000), Factors underlying the effect of organisational downsizing on health of employees: longitudinal cohort study, *BMJ* 2000;320:97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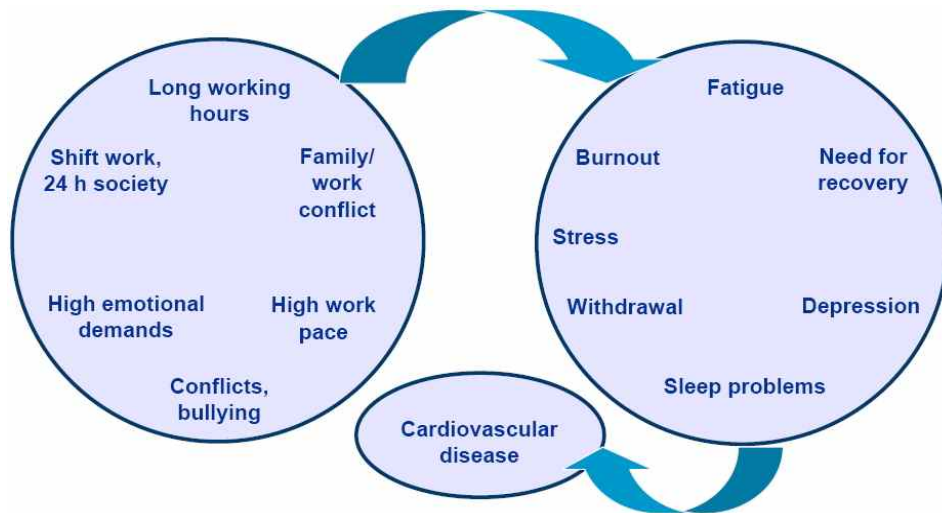


그림 2 새로운 노동방식이 심혈관계 질환에 이르는 경로(Landbergis, P.(2007);Tage Kristensen,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Denmark, 2006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이로 인한 새로운 노동방식으로 인해, 개별노동자들의 경우 건강이 악화되고 집단적으로는 동료 노동자들간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또한 무너지게 된다. 또한 구조조정이 직무스트레스 강화,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강화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진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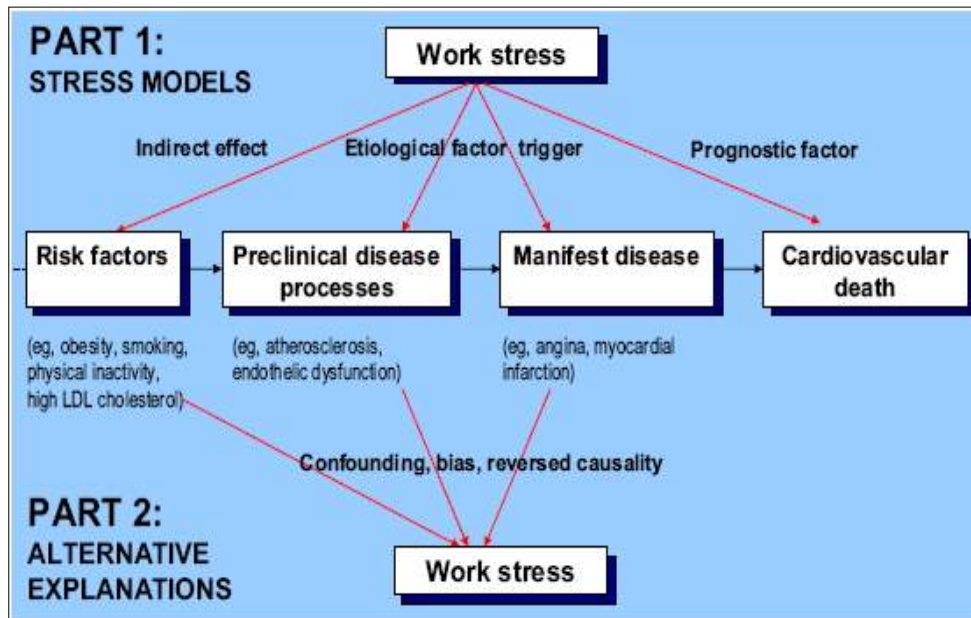


그림 3 직무스트레스에서 심혈관계질환에 이르는 경로 가정(Kivimäki, M. et al. Kivimäki, Work stress in the etiology of coronary heart disease—a meta-analysi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06;32(6, special issue):431--442)

5.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조조정은 노동자 건강에 매우 해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으로는 자살을 비롯한 심혈관계 사망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악화, 건강행태의 악화, 근골격계 질환 증가,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까지도 유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가족관계의 파탄, 사회적 관계의 악화, 지역사회에서의 고립과 차별 등, 다루지 못한 인간관계의 악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복지정책이 잘 구축된 북유럽 국가라고 할 때, 한국과 같이 모든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노동자의 건강과 희생을 담보로 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파괴적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구조조정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바, 향후 한국에서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조정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일련의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